교수단상

역사의 변화와 불변의 변증

이 석 우
〈문리대교수 사학〉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80년대와 90년대의 변화에 대해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학 캠퍼스와 거리를 뒤흔들던 집회를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주장은 사뭇 다르다. 그 화사한 고정의 빛깔을 무색케 했던 최루탄과 화염병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없는가?

확실히 변화는 외외로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같은 변화를 가져오게 한 근본적인 동인(動因)은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아마 이러한 변화에 대한 나름의 답을 구하려는데서 철학이 나오고 역사가 출발하지 않았는가 싶다. 희랍의 자연철학자들은 우주의 본질을 불변의 인자들에서 찾고자 하여 탈레스 같은 이는 우주의 본체는 물이라고 했고 피타고라스는 숫자라고 했다. 그러나 불변의 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도 우주의 본질은 변화라고 하지 않았던가. 중국의 한 전통사상도 변화의 원리를 음양오행설로 풀이하려 하였다. 선인들은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원리를 찾다보니 변화를 인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

사실 변화와 불변은 벌개의 것 같지만 두 개념은 뗄 수 없는 공존의 긴장관계임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다.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불변을 알아야 하며 불변을 알기 위해서는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점에서 역사란 변화에 대한 학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불변의 영역도 대상으로 한다. 아니 역사 전체가 변화와 불변의 상호대립 관계에서 끊임없이 전개되는 지도 모른다. 역사의 궁극적인 동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지만 역사는 변화와 불변과 더불어 형성된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치 못할 것이다.

아침마다 산책하는 소나무 오솔길에서 나는 특이한 현장을 목격하였다. 가을내내 칭청해 보이는 푸른 소나무 둥치 아래 노랗과 짙은 갈색의 솔잎이 수북이 쌓여있는 것이었다. 소나무도 가을의 낙엽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 보면 소나무도 낙엽수임이 틀림없다. 다만 소나무가 그토록 푸르고 정정해 보이는 것은 그 옷갈아 입는 시간의 중심점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소나무가 소나무 꼴은 변화와 불변의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변화와 불변은 연속선상에 있으며, 분리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서 있는 시점 또한 변화와 불변의 역동적으로 만나는 교차점이다. 현재란 기실 흘러 있는 것이 아니며 과거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점점인 것 같다. 현재는 틀임없이 과거가 되어가지만 과거 또한 현재 속에 살아남아 있다. 역으로 오늘의 시점에서 과거를 볼때, 과거에는 언제나 현재가 투영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만들어 가고 있는 역사와 문화는 모두 과거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어도 과거와 관계되어 있지 않은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현대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변화의 속도가 너무도 빠르기 때문에 과거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는 청산해야할 유산, 심지어 발전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까지 생각되고 있다. 계몽주의자에게 있어 과거란 언제나 현재보다 못한 것이었다. 그래서 역사가의 입무는 과거가 현재와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점목되어 있는가만 찾아내면 되었다.

우리는 지금 변화의 신화속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변화는 곧 발전이며 진보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도 과학에 대한 지나친 신뢰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과학과 기술은 언제나 변화를 수반했다. 나날이 다르게 변하는 컴퓨터모델, 매주 변하다시피하는 무선통신기기, 매년 변하는 자동차모델 같은 것들이 이를 표징한다. 변화는 좋은것이라는 생각은 아직 계몽주의적 사고패턴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이성이 믿음보다, 합리적인 것이 비합리적인 것보다 낫다는 막연한 가설에 따른 과학주의 교육을 우리는 받아왔다. 그것의 공헌 못지않게 이성의 이름으로 우리의 세계인식 영역이 얼마나 좁혀졌는지를 생각해 볼 일이다. 인간은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발전과 변화를 통하여 어떤 완성점에 도달하리라는 거대를 영원히 버릴 수 없을지 모른다.

우리의 전래적 가치에 따르면, 변하지 않는것과 줄더 영원성을 띤 것이 가변적인 것보다는 높은 가치를 차지했다. 그래서 진리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이 개념마저 바뀌고 있는것 같다.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것은 버릴 것으로, 사악한 것이라고까지 여기는 현실이다. 누군가 현대 3년간의 변화는 근대사회의 30년간의 변화에 해당한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 변화들은 자본논리에 의해 더욱 촉진 가속화되고 있다. 자본주의적 상품논리에 의하면 옛것은 새 것보다 모두 못하다. 마치 자전거가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듯이 상품은 변화시키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 거기에 나름의 장점도 있겠으나 단점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변화가 격심할수록 변하지 않는 것도 있어야 한다. 과거를 맹목적으로 지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변화일변도의 추구에도 큰 문제가 있다. 가파른 벼랑에서 추락한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이델베르크의 괴테동상 옆에 선 필자.

올바른 변화위한 일관된 주체성 확보해야
변증적 인식의 과정 통한 창의적 인간 지향

변화는 타세에 의해 밀리듯이 이끌려 가는 변화가 아니라 변화와 불변이 조화를 이루는 정신적 역동성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같은 변화와 불변의 긴장관계를 중용이라고 해도 좋을것 같다. 중용이란 막연한 기하학적 중간이나 어중간한 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변할 것은 변하고, 지킬 것은 지킨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의 폭발적 역동성을 수용해야겠다. 그것은 곧 대상과 주체사이의 끊임없는 변증적 인식과 그 과정을 필요로 한다. 변화의 필요가 절실할수록 변하지 않아야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중용은 움직이는 균형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주변의 그 숱한 문제들, '도세비리' '지존파 사건' '성수대교 붕괴'등을 보는데 있어서도 근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겠다. 지켜야할 것들까지 변질시켜버린 때문이 아닐까? 지켜야할 규칙들을 무시하고 능률과 편의주의를 좇아온 결과가 아닐까? 축구이기 위해서는 발로 차야한다. 손으로 던질 때에는 축구가 아닌 럭비든지 미식축구가 된다. 우리 모두 당장의 필요 때문에 규칙을 깨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개인이 룰을 깨뜨리면 개인의 혼란이, 국가가 이를 깨뜨리면 로마조차도 멸망하였다.

진정한 변화는 바른 불변으로부터 시작되는것은 아닐까?

이 때문에도 우리는 상식인이 아닌 장인적, 전문적, 창조적 인간의 필요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인간들은 변화의 원천을 신에게서, 자연에서, 인간에서, 또는 구조에서 구해왔다. 그러나 역시 일차적 책임은 변화에 대한 인간의 정신적 대응에서부터 시작됨은 잊지 않아야겠다. (물론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인지의 지혜를 간과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만하임(K. Manheim)도 일찌기 그의 '지식사회학'에서 지적했듯이 객관적 진실인한 주관과 객관의 역동적 인식 과정이라 했다. 비코(Vico), 크로체(Croce), 콜링우드(Collingwood)도 끝내 인간의 역동적 정신성에 크게 주목하였다. 바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변함수 없는 정신의 주체성을 확보해야겠다. 순수이성이나 인간존엄성 같은것이 중시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역사에서의 사실이란 것도 인식주체의 진술이나 함의의 과정적 단계일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객관) 이전에 해석(주체적 선택)이 선행하며 구매에 비유한다면 '형상과 질료 중 형상이 조금 먼저일지도 모른다. 이 점에서 주체적 정신의 활동 없이 외적 변화만 따라가는 인간과 문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는 자명하다. 능률과 성과주의, 쏟아지는 정보와 정쟁은 끝내 인간을 소외시킬 뿐이지 인간의 근본적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지 않을 것이다.

온당한 변화를 위해서 변하지 않아야할 것, 지킬 것을 지켜야 한다. 거기에서 주체적 역동성이 나오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수동적 예속이 있을 뿐이다.

세시봉

이유경 문화부 기자

소문만 무성한 잔치 "이제 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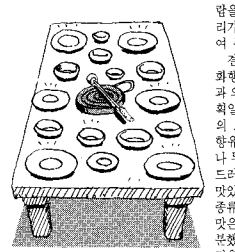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란 속담이 있다.

1994년을 맞을 당시 나라의 잔칫상에는 이름만 들어도 호롯한 요리가 가득했다. 그러나 정부의 세계화 운운에 걸맞는 '한국 방문의 해'는 우리나라 신문에서나 흥보를 독려할 뿐 정작 알려졌어야 한 외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일례로 미주관 한국일보에는 '생표간장광고'보다 작은 한국 방문의 해 광고가 실려 있었다. 오히려 '조국방문의 해'라 할이 옳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해외 동포들이 고향을 많이 오간 것외에 다른 해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 역시 지난해 있었던 대전 엑스포처럼 '짐안 잔치'라는 나라 안팎의 여론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

한편 '서편제'이후 뜨거운 관심과 주목을 받아 왔던 '국악'은 어떠했던가. 우리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국악의 수난사는 개화기인 19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당시의 정책은 '서양화'에의 일로였기에 근악대가 설립되었고, 교육시책 역시 조양 구락부에 양악과가 처음 설치되었다. 정치, 사회, 교육체제의 변동이 주는 영향이 음악문화의 뿌리조차 꺾어 버린 우리나라 슬픈 역사의 단면들인 것이다.

당초에 우리가 맞은 국악의 해는 참으로 많은 소생의 희망에 잠기게 하였다.

'국악의 해 조직 위원회'서는 4억의 지원예산으로 99억어치의 사업 계획을 만들어 놓아 국악인들이 구설이라고 해서라도 사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여 왔지만 '국악의 해'란 이름을 걸고 개최된 세번의 대형 공연에 있어서 국악 관련인끼리 만이 관람을 하여 대중화와 거리가 먼 공연 양상을 보여 주곤 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문화행사가 기획의 참신함과 의도의 건실함에 비해 획일적인 관주도 시행상의 오류들로 인해 문화향유계층의 수동적 동의나 무관심으로 괴리감을 드러냈을 뿐이다. 갖가지 맛없어 보이던 음식들은 종류는 많았으나 실제 맛은 실망을 주기에 충분했던 잔치상이라는 오명을 남긴 것이다.

현대를 '문화전쟁의 시대'라고 말한다. 자본 즉 기업이 문화를 외면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뜻 외에도 이데올로기를 채용 차세대의 조류로서도 문화란 큰 의의를 담고 있다. 그래서 지난 4월18일 창립 총회를 갖고 사단법인으로 발족한 '한국메세나기업협의회'가 갖는 의의가 시기적절한 정책으로 생각되고 환영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메세나'는 기업의 자발적인 문화진흥과 사회환원 차원에서 벌어지는 문예운동을 말한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문예진흥원의 홍보활동과 문체부의 주도로서 결실을 본 '관주도 문화활동'의 하나라는 외톡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이미 메세나 운동이 정착한 프랑스의 '사용업메세나추진협의회'나 일본의 '기업메세나협의회'와 다른 우리의 경우는 기업문화 운동의 자기 정체성확보의 위상정립에 실패해 또 하나의 전래로 남지 않을 까 염려를 하게 한다. 그러나 열악한 지원과 자발적 대중문화의 부족, 산발적인 논의만 무성했던 현 문화 상태를 치유해갈 일시적 기구로서라도 메세나에 희망을 걸어보는 것은 문화혁명기라는 1995년이 바로 눈앞에 닥쳤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새로나온 책

'배교일기' 이연철 지음

천주교 박해 통한 종교의 의미 그려

신(神)은 언제나 인간에게 의문투성이의 존재이다. 줄처럼 다루기 어려운 소재인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룬 소설이 출판됐다.

'배교일기'는 조선조 이 땅에 불었던 천주교 박해사건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조선시대 후반 기독교 수용기의 역사는 세계천주교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2천명 이상이 죽어갔고 한꺼번에 1백3명이 순교했다.

이처럼 처절한 순교와 배교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본격문학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작자 이연철은 이 역사를 담담한 필치로 묘사하는 동시에 '종교란 과연 무엇인가'하는 신과 구원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 접근하고 있다.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졌던 인물들의 여정, 주인공 순성이 권력의 핵심으로 가기 위해 운명적으로 밟아야 하는 가나긴 배교의 과정이 한 편의 대하드라마로 펼쳐지고 있다.

무거운 주제를 가볍고 알기 쉽게 표현한 작가의 여유도 빛난다. 이런 테마가 주인공들의 사랑과 이별의 사연속에 녹아있기 때문이다.

작가 이연철씨는 충북 충주에서 출생하여 우리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84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그러운 꿈'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한뜻/6천5백원

1995학년도 경희대학교 병설 간호전문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학과명	입학정원	모집인원				비고
		일반	정원외특별		계	
간호과	주간	120	120	12	132	*수업년한 3년

※정원외특별전형:입학정원의 10%이내

2. 응시자격

신체 건강한 여성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일반전형
1)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1994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교육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각호의 ①에 해당하는 자
나. 정원외특별전형
1)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

3. 전형방법

가. 일반전형
199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및 고교내신성적으로 전형한다.
나. 정원외특별전형:대학성적으로 전형한다
다. 성적반영 비율

구 분	수학능력시험성적	내신성적	대학성적	계
일반전형	60%	40%	—	100%
정원외특별전형	—	—	100%	100%

4. 전형일정

가. 원서교부:1995.1.26(목)—2.11(토) 오후 17:00까지(일요일 포함)
나. 원서접수:1995.2.7(화)—2.11(토) 오후 17:00까지
다. 예비소집:1995.2.13(월) 오전 09:00(경희대학교 대운동장)
라. 면접고사:1995.2.13(월) 오전 10:00
마. 합격자 발표:1995.2.17(금) 오전 11:00
바. 신체검사
1995.2.17(금) 오후 14:00(장소:경희대학교부속치과병원지하 1층)
신체검사 불합격 처리기준
정신병자, 농자, 아자, 맹자, 나병, 심신박약자, 색맹자, 색약자, 폐결핵등 면학에 지장을 주는 질환 및 정형외과적 결함을 가진자로, 자력으로는 학습과 실험, 실습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정되는 자

※ ○원서교부장소:본 대학 총무과 및 주요서점
○원서접수장소:본 대학 총무과
○우편접수할 시에는 소정서류를 갖추어 전형료(우편소액환)를 동봉하여 등기 우송하여야 함(단, 2월 11일(토)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서류

가. 일반전형
1)입학원서 : 본 대학 소정양식 1부(사진은 최근 3개월이내 반명함판으로 부착할 것)
2)출신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또는 석차연명부 사본1부
3)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원본지참)
4)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 면접고사 때 제출
나. 정원외 특별전형
1)입학원서 1부
2)대학졸업 증명서 1부
3)성적증명서 1부
다. 전형료 : 20,000원

6. 수험생 유의사항

가. 지원방법 : 입시일자가 같은 전문대학, 대학, 개방대학간에는 지원이 금지되며, 위반자는 합격후에라도 입학을 취소한다.
나. 입학원서 기재시 유의사항
1)입학원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할시에는 본인의 도장으로 정정하여야 하며, 내신성적 기재란은 학교장 직인으로 정정한다.
2)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기재하지 않는다.
다. 면접고사 : 1995. 2. 13(월) 오전09 : 40까지 해당고사장에 입실한다.
라. 수험생은 면접고사 당일 오전 10 : 00이후에는 입실을 불허한다.
마. 면접고사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바. 면접고사 당일 지참물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수험표, 필기구,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 신체검사
1)신체검사는 합격자에 한하며 이에 응시하지 않는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2)신체검사 불합격 처리 기준
정신병자, 농자, 아자, 맹자, 나병, 심신박약자, 색맹자, 색약자, 폐결핵등 면학에 지장을 주는 질환 및 정형외과적 결함을 가진자로, 자력으로는 학습과 실험, 실습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정되는 자
아. 합격자중 복수지원 합격으로 인해 등록을 포기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포기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 신입생 등록기간 및 장소
○등록기간 : 1995. 2. 18(토)~2. 21(화) 오후17 : 00까지
○등록장소 : 본 대학 총무과
차. 등록 포기자에 대한 등록금 환불 : 미등록 충원 기간(1995. 2. 28)이 경과한 후에는 등록금 환불이 되지 않음

7. 장학제도

학장장학, 입시장학, 최우수장학, 우수장학, 우등장학, 준우등장학, 경희학원 장학, 봉사장학, 교육자 자녀 장학, 근로장학, 보훈장학, 동창장학, 롱아일랜드대학동문 장학 등이 있음

8. 기타사항

가. 동점자 처리기준 :
1)일반전형 : ①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우위를 우선으로 한다.
②고교내신성적 우위를 우선으로 한다.
③면접고사 득점 상위를 우선으로 한다.
④고등학교 당해년도 졸업자를 우선으로 한다.
⑤연소자 18세 이상을 우선으로 한다.
2)정원외특별전형 : ①전학년 성적 우위를 우선으로 한다.
②면접고사 득점 상위를 우선으로 한다.
③당해년도 졸업자를 우선으로 한다.
나. 합격후에라도 입학원서등 제출서류를 변조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불법행위로 합격한 자는 입학을 취소함.
다. 합격자 발표후 미등록자로 인하여 결원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10%이상 발표하며 그 석차 순에 의하여 충원함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무과(966—4196, 962—4578, 958—4800)에 문의할 것.